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185
----------	-----

발의연월일 : 2007. 7. 9.

발 의 자 : 전병배의원외 13인

1. 주 문

- 2005년 7월 도입한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시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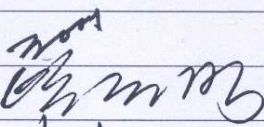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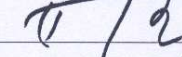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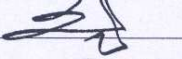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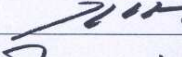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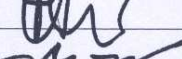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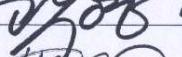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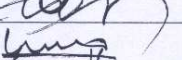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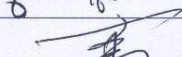

-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투입했지만, 서비스 개선이나 업계 스스로의 경영 혁신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고, 준공영제 시행여부에 대한 의회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성을 인식함.
-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90년대 이후 자가용 대중화, 승객감소, 수입금 감소, 서비스 저하, 승객 이탈, 수입금 감소의 악순환 등 요인과 해마다 노사협상의 쟁점으로 반복되어온 시내버스 파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 7월부터 전격 도입해 시행해 왔으며,

- 당시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운송업체는 만성 운영적자에서 벗어나 경영수지가 향상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역시 개선되어 파업사태 예방에 따른 안정적인 버스공급이 예상되었으나 현실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고 투자비만 대폭 증액되었음.
- 그간 운영상황을 보면 버스의 안정적 운행기반 및 이용환경 개선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반면 재정지원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비용·저효율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그간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예산심의시 수차례에 걸쳐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그간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원점에서 검토하여 지금의 준공영제를 발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차원의 운영실태파악과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찬성의원서명

의원명	서명	비고
전 남 124		
하 수빈		
김 최현		
오 영세		
이 성호		
오 재민		
이 상태		
권 신혜		
배 희진		
권 형혜		
곽 영교		
김 은석		
송 재웅		
조 한우	